

고린도전서 11:10의 ἐξουσίαν ἔχειν ἐπὶ τῆς κεφαλῆς 번역 문제

이승현*

1. 들어가는 말

고린도전서 11:2-16은 바울 학자들에게 해석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본문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남녀 간에 놓인 차별을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비교. 11:3, 7-9), 동시에 상호성과 평등을 주장하면서 그 차별을 타파하는 것 같기도 하다(11:11-12). 바울은 남녀 간의 관계를 옛 창조에 대한 미드라시적 해석을 통해서 권위적으로 표현하는 듯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새 창조 신학을 통해서 평등하고 보완적인 관계로 제시한다.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은 머리 길이에 따른 남녀의 구분된 헤어스타일의 필요성을 창조의 원칙, 사회적 관습, 그리고 교회의 관례를 통해서 강조한다. 그런데 남녀 간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정말 전달하고 싶은 가르침은 무엇일까?¹⁾ 바울 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시원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여러 해석학적 제안들을 제시했다. 이 본문이 품고 있는 해석학적 어려움의 원인들 중 하나는 11:10에서 발견되는 그리스어 표현 ἐξουσίαν ἔχειν ἐπὶ τῆς κεφαλῆς διὰ τοὺς ἀγγέλους이다.²⁾ 이 표현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διὰ τοὺς ἀγγέλους도 해석학적

* Harvard Universit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호서대학교 신약학 부교수. shlee@hoseo.edu.

1) 참조. L. T. Stuckenbruck, “Why Should Women Cover Their Heads Because of Angels? (1 Corinthians 11:10)”, *Stone-Campbell Journal* 4:2 (2001), 205-234.

2) 참조. A. C.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도전을 요청하지만, 본 논문에서 우리는 전반부의 ἐξουσίαν ἔχειν ἐπὶ τῆς κεφαλῆς의 해석과 번역에 집중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이 그리스어 표현에 대한 『개역개정』의 번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추후 번역 수정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의 분석은, 먼저, 이 그리스어 표현에 대한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 관찰해 보고, 이 표현에 대한 바람직한 해석과 번역을 그리스어 문법을 중심으로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제시하는 대안적 해석이 고린도전서 11:2-16의 전체 문맥적 흐름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2. 문제제기

고린도전서 11:10에서 발견되는 그리스어 표현 ἐξουσίαν ἔχειν ἐπὶ τῆς κεφαλῆς는 여러 한글 성경 번역본들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되고 있다:

『개역개정』	<u>권세 아래 있는 표를</u>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개역한글』	<u>권세 아래 있는 표를</u> 그 머리 위에 둘찌니라
『표준』	그 머리에 <u>권위의 표를</u>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새번역』	그 머리에 <u>권위의 표를</u>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	여자는 자기가 <u>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u> 로 머리를 가리워야 합니다
『공동개정』	여자는 자기가 <u>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u> 로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글 성경 번역본들이 그리스어 단어 ἐξουσία를 여성들의 머리 위에 두어야 할, 혹은 머리를 가려야 할 “권세 아래 있는 표”, “권위의 표”, 그리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특별히, 『개역개정』은 이 그리스어 단어를 “권세 아래 있는 표”로 번역함으로써, 여성이 남성의 권세 아래 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녀의 ‘머리 위에 두는’ 그 어떤 상징적 물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공동』과 『공동개정』은 이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는 여성들의 ‘머리를 가리는’ 물건이라고 칭한다. 이러한 번역들은 남성의 권위 아래 있는 표시로서 여성

(Grand Rapids: Eerdmans, 2000), 837; R. B. Hays, *First Corinthian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1), 187.

들의 머리를 가리는 베일에 대한 오래된 해석학적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그리스어 표현 ἐξουσίαν ἔχειν ἐπὶ τῆς κεφαλῆς 번역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본들도 한글 성경 번역본들과 그 기초를 같이하고 있다:

NAS	the woman ought to have a <u>symbol of authority</u> on her head
NRS	a woman ought to have a <u>symbol of authority</u> on her head
ESV	a wife ought to have a <u>symbol of authority</u> on her head
NIV	a woman ought to have <u>authority</u> over her own head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본들은 고린도전서 11:10의 그리스어 단어 ἐξουσία를 “symbol of authority”, 즉 “권위의 표시”로 번역하고 있다. NIV만이 symbol이라는 단어를 삽입하지 않고 있지만, 여성들이 자신들의 머리 위에 존재하는 권위, 즉 남성들을 자신들보다 더 권위 있는 자들로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ESV의 경우는 여인을 부인으로 해석하여, 그녀가 남편의 권위 아래 있는 표시를 그 머리 위에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번역한다. 이런 면에서, ESV는 『공동』 및 『공동개정』과 유사한 신학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1:10의 번역에 대한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 번역본들이 야기하는 첫 번째 핵심 문제는 그리스어 단어 ἐξουσία가 “권세 아래 있는”과 같은 ‘수동적’ 의미를 그 의미장 안에 품고 있느냐의 여부이다. 뒤에서 더 자세히 논의되겠지만, 그리스어 사전들에 등장한 ἐξουσία의 용례들을 조사해보면, 이 단어는 ‘통제’, ‘권리’, 혹은 ‘자유’와 같은 굉장히 ‘능동적’ 의미를 그 의미장 안에 품고 있다.³⁾ 그리고, 두 번째, 『개역개정』을 필두로 한 한글 성경 번역본들과 NAS, NRS, ESV 등의 영어 성경 번역본들이 ἐξουσία의 번역 뒤에 삽입한 “표/표시”(symbol)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그리고, 세 번째, ‘여인들의 머리에 놓인 권위의 표시’ 즉 ‘베일’과 ‘영광의 표시로 여성들의 머리를 덮도록 주어진 긴 머리’가 어떻게 해석학적으로 동일한 것이냐이다(비교. 11:15). 이와 연관된 네 번째 문제는, 권위의 표시 혹은 남성의 권위 아래 있는 표시라는 번역은

3) 참조. F. W. Danker, W. Bauer, and W. Arndt,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277-279; H. G. Liddell and R. Scott,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1996), 599.

11:11-12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남녀 간의 평등과 상호성의 개념과 충돌하는 듯 보인다는 것이다.⁴⁾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그리스어 문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재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제는 고린도전서 11:2-16의 해석학적 분석 아래서 재고될 수 있다.

3. 그리스어 표현 ἐξουσίαν ἔχειν ἐπὶ τῆς κεφαλῆς에 대한 문법적 분석

고린도전서 11:2-16의 해석사적 분석을 통해서 볼 때, 이 본문은 주로 남성의 권위에 대한 여성의 복종이라는 보수적 의미로 해석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⁵⁾ 이러한 전통적 해석 흐름 속에서, 11:10에서 발견되는 그리스어 단어 ἐξουσία는 ‘여성들 위에 존재하는 권위’(즉, 남편/남자), 혹은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것’(즉, 베일) 등의 수동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신약성서에서 100여 번 등장하는 이 그리스어 단어는 한 번도 수동적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칠십인역이나 필로, 그리고 요세푸스의 작품들에서도 이 단어는 단 한 번도 이 단어가 속한 본문의 주어 이외의 다른 존재를 그 주어를 다스리는 권위 있는 주체로 제시하지 않는다.⁶⁾ 그리스어 사전 *BDAG*는 ἐξουσία의 사전적 정의로 다음과 같은 7가지 주요 의미들을 제시한다: right, power, rulers, official power, bearer of ruling authority, domain of power, means of exercising power.⁷⁾ 이 의미들은 모두 권리, 능력, 통제 등과 같이 그 주어가 소유한 강한 능동성을 표현한다. 이런 측면에서 11:10의 ἐξουσία는 여성들을 다스리는 외부 주체들의 권위가 아니라, 여성들의 머리를 향한 그녀들의 권리 혹은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권위 있는 그리스어 사전 *LSJ*는 ἐξουσία의 주요 의미로, *BDAG*와 유사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위”, “권위 있는 직분”,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수단” 등을 제시한다.⁸⁾ 이 사실은 고린도인들이 11:10의

4) 참조. J. A. Fitzmyer, *First Corinth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Yale Bible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415-417.

5) G.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Revised ed.,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4), 519.

6) Ibid.

7) F. W. Danker, W. Bauer, and W. Arndt,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277-279.

8) H. G. Liddell and R. Scott, *A Greek-English Lexicon*, 599.

ἐξουσία를 통한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이 단어를 여인들이 자신들의 머리에 행사할 수 있는 권위나 능력과 연관시켜 이해했음을 알려준다. 이 그리스어 단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이 단어가 1세기 당시 의미할 수 있었던 의미장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어 번역본들과 영어 번역본들이 ἐξουσία의 번역에 추가한 단어 “표/표시/symbol”은 어디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⁹⁾ 초기 기독교의 배경이 된 그리스-로마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 단어가 포함한 능동적 의미를 여성들의 머리에 대한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일부 초기 교부들은 그리스어 단어 ἐξουσία를 남성 권위의 “표/표시”를 의미하는 κάλυμμα(베일, 수건)로 대체했다(비교. RSV).¹⁰⁾ 그러나 만약 바울이 여성들에 대한 남성들의 권위의 상징으로 베일을 머리에 쓰기를 원했다면, 왜 그는 단순히 쉬운 단어 κάλυμμα를 11:10에서 사용하지 않고, 대신 어려운 단어 ἐξουσία를 차용했는지 의문이 든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13-16에서 κάλυμμα를 네 번 사용하고 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κάλυμμα를 모세의 얼굴에 임한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의 가려진 마음을 묘사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사용한다. 이처럼 κάλυμμα가 바울에게 즉각적으로 사용 가능한 쉬운 단어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1:10에서 차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바울과 고린도인들에게 κάλυμμα와 ἐξουσία는 결코 동의어가 아니었다.

신약성서에서 ἐξουσία는 대략 100여 번 정도 등장하고, 바울 서신서에서는 대략 18여 번 등장한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권리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지칭한다(롬 9:21; 13:1-3). 고린도후서는 이 단어를 통해서 주 예수가 그에게 허락한 사도로서의 권위를 설명한다(고후 10:8; 13:10). 그리고 우리의 현재 본문이 속한 고린도전서에서 이 단어는 대략 10여 번 등장한다. 고린도전서 11:10을 제외한 나머지 본문들에서 ἐξουσία는 처녀 딸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7:37), 우상에게 드러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8:9),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결혼하며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9:4-6, 12, 18), 그리고 영적인 권세(15:24)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리스어 단어 ἐξουσία의 동

9) G.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519-520.

10) B.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 (London;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94), 495; A. C.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837; J. Fitzmyer, *First Corinth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416.

사형 ἐξουσιάζω는 바울 서신서에서 세 번 등장한다. 고린도전서 6:12에서 이 단어는 바울을 통제할 수 있는 행위들을, 그리고 7:4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서로의 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그리스어 단어 ἐξουσία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곳은 고린도전서이다. 이 사실은 이 단어가 고린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경험하게 된 새로운 자유에 대한 그들의 슬로건으로 기능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6:12에서 바울은 이 그리스어 단어를 자신을 향한 통제 의미로 자신에게 먼저 적용함으로써, 고린도인들도 그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절제해야 함을 가르치기 원한다. 이 사실은 11:10의 경우에도 ἐξουσία는 고린도의 여인들이 행사할 수 있는 무분별한 자유가 아니라, 통제하고 절제해야 할 자유 혹은 권리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ἐξουσία가 전치사 ἐπί와 함께 사용될 때, ἐπί는 ἐξουσία가 적용되는 영역을 가리킨다(비교. 계 2:26; 11:6; 13:12, 17; 14:18; 16:9). 이 사실은 고린도 여인들의 통제되고 절제된 자유 행사의 대상이 그녀들의 머리임을 분명히 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1:10의 그리스어 표현 ἐξουσίαν ἔχειν ἐπὶ τῆς κεφαλῆς를 어떻게 이해하고 번역해야 할까? 이 표현을 가장 쉽고 단순한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 표현은 여성들이 그들의 머리에 대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 혹은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고린도전서 11:2-16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여성들의 절제와 통제, 그리고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견지해야 할 남녀 간의 구분의 메시지와 충돌한다.¹¹⁾ 그리고 그리스어 표현 διὰ τοὺς ἀγγέλους는 여성들의 머리에 대한 방임적 자유를 견제하는 해석학적 견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언급되는 천사들의 정체에 대해서 바울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 천사들의 정체에 대해서 학자들은 타락한 악한 천사들, 혹은 하나님의 회중들과 함께 거하는 공동체의 수호자들이라는 두 가지 견해들을 제시했다.¹²⁾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천사들을 하늘의 시민들로, 그리고 성도들이 심판할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비교. 4:9; 6:3; 13:1).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천사들은 타락한 악한 천사들이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의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늘의 시민들로 보는 것이

11) 이 본문 전체에 대한 해석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저자의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S. Lee, "Paul's Response to the Corinthian Gender Issue Related to κατακαλύπτω and ἀκατακαλύπτω in 1 Co 11:2-16", 『신약논단』 25:1 (2018), 109-144.

12) 참조. G.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521-522; J. Fitzmyer, "A Feature of Qumran Angelology and the Angels of 1 Cor. 11:10", *NTS* 4 (1957-1958), 48-58; J. Fitzmyer, *First Corinth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418-419; A. C.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839-841.

더 타당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여러 문법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그리스어 표현 ἐξουσίαν ἔχειν ἐπὶ τῆς κεφαλῆς는 여성들의 머리에 대한 무조건적 자유가 아니라,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머리를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어 표현을 담은 11:10의 바람직한 번역은 ‘여인은 천사들을 인하여 그녀의 머리를 통제해야 합니다.’가 될 것이다.¹³⁾ 고린도전서 11:2-16에서 바울은 남녀의 머리에 대한 통제를 그들의 머리를 덮거나 덮지 말아야 하는 문제, 즉 머리 길이에 따른 적절한 헤어스타일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다(비교. 4-5절, 14-15절). 이어지는 논의에서 우리는 우리가 제시한 대안적 번역이 고린도전서 11:2-16 전체의 메시지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문맥적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4. 고린도전서 11:2-16의 여성들의 머리와 헤어스타일 문제 분석

고린도전서 11:10의 ἐξουσίαν ἔχειν ἐπὶ τῆς κεφαλῆς에 대한 우리의 대안적 번역은 크게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첫 번째, 그리스어 단어 ἐξουσία는 그 의미장 안에 굉장히 능동적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11:2-16의 맥락은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유지되어야 할 남녀 간의 성적 구분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통제와 연관이 깊다.¹⁴⁾ 그리고, 세 번째, 남녀 간의 구분을 견지하기 위해서 고린도의 여인들이 자신들의 ἐξουσία를 행사해야 할 영역은 그리스어 전치사 ἐπὶ가 수식하는 τῆς κεφαλῆς, 즉 그들의 머리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번역은 여인들이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여전히 남녀의 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신들의 머리를 통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표현해야 한다. 11:2-16에서 여인들이 개인적 자유를 절제하고 자신들의 머리를 통제하는 것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표현하는 적절한 머리 길이에 따른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비교. 11:14-15). 사실, 모든 번역은 번역하는 대상이 되는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에 근거해야 하기에, 그 번역의 정당성은 얼마나 해당 본문을 잘 설명해 주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대안적 번역이 얼마나 해석학적으로 정당

13) 참조. R. B. Hays, *First Corinthians*, 187; G.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520-521; A. C.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839.

14) S. Lee, “Paul’s Response to the Corinthian Gender Issue Related to κατακαλύπτω and ἀκατακαλύπτω in 1 Co 11:2-16”, 117-119.

한지를 11:2-16에 대한 문맥적 분석을 근거로 증명해야 한다.¹⁵⁾

고린도전서 11:2-16에 대한 해석은 이 본문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과 매우 연관이 깊다. 11:5-6에서 바울은 상반되는 두 그리스어 단어 κατακαλύπτω와 ἀκατακαλύπτω를 통하여 고린도인들의 문제가 머리를 덮거나 덮지 않는 것임을 알려준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도와 예배 시에 여인들이 머리를 덮어야 할 베일이라고 주장한다.¹⁶⁾ 그러나 이방인들이 신들에 대한 예배 시에 착용하던 베일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했다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¹⁷⁾ 그리고 1세기 그리스-로마 사회에서 여인들이 베일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불명예스럽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점은 베일이 11:5-6에서 언급되는 불명예의 원인이 될 수 없음을 알려준다. 이에 마틴(D. Martin)은 악한 영적 존재들로부터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베일의 ‘예방적’(prophylactic) 기능에 대해서 주목한다(비교. 창 6:1-4).¹⁸⁾ 그러나 고린도전서 11:10에서 언급되는 천사들이 여인들을 탐하는 악한 영적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오히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천사들을 하늘의 시민들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현재 본문의 별거벗은 머리의 문제가 베일이 아니라, ‘잘 땅아져 단정하게 묶여 있지 않고 풀어 헤쳐진 머리’라고 주장한다.¹⁹⁾ 그러나 11:14-15에서 바울은 여인들에게 주어진 긴 머리가 그들에게 영광이 되고, 그들의 머리를 덮는 ‘가리는 것’(περιβόλαιον)으로 주어졌다고 가르친다. 여인들의 긴 머리가 머리 가리개로 주어졌다면, 여인들은 별도의 베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여인들의 머리의 길이이지, 긴 머리가 잘 땅아져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다. 만약, 여인들의 풀어 헤쳐진 머리가 불명예스런 것이라면, 단순히 긴 머리가 아니라 잘 장식되고 땅아진 머리가 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현재의 본문에서 바울이 문제시 삼고 있는 것은 덮여지거나 혹은 별거벗은

15) 참조. Ibid., 109-144.

16) D. W. J. Gill, “The Importance of Roman Portraiture for Head-Coverings in 1 Corinthians 11:2-16”, *Tyndale Bulletin* 41:2 (1990), 245-260.

17) C. L. Thompson, “Hairstyles, Head-Coverings, and St Paul: Portraits from Roman Corinth”, *The Biblical Archaeologist* 51:2 (1988), 99-115.

18) D. B. Martin, *The Corinthian Bod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5), 229-249.

19) W. Schrage,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Ekk (Zürich: Benziger, 1991), 491-494; P. T. Massey, “Dress Codes at Roman Corinth and Two Hellenic Sites: What Do the Inscriptions at Andania and Lycosura Tell Us About 1 Corinthians 11.2-16?”, *Journal of Greco-Roman Christianity and Judaism* 11 (2015), 51-81.

여인들의 머리이고, 이 문제는 머리의 길이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²⁰⁾ 바울이 속한 1세기 그리스-로마 사회의 통념에 따르면, 남자들은 머리를 덮은 머리 즉 긴 머리가 아니라 짧게 깎아 다듬어진 머리를 소유해야 하고, 여자들은 남자와 같은 짧은 머리가 아니라 머리를 덮고 있는 긴 머리를 소유해야 했다.²¹⁾

고린도전서 11:4-6에서 바울은 남자들의 짧은 머리와 여자들의 긴 머리를 그들 간에 존재하는 성적 구분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바울이 헤어스타일에 따른 남녀 간의 구분을 이처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바울 당시 고린도 사회가 남녀 간의 구분의 문제에 대해서 전제하고 있는 “불명예와 명예”(shame and honor)의 개념을 통해서 제시될 수 있다. 고린도인들이 속한 헬라 문화는 남녀 간의 평등이 아니라, 자유인 남자를 사회적 계층 사다리의 맨 위에 위치시킨 계급 시스템에 기반했다. 따라서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인간 구원은 남성의 몸을 중심으로 한 변화를 통해서 표현되기도 했다.²²⁾ 그들에게 남성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한 변화의 완성을 의미했기 때문이다(비교. 도마복음 114; 필로, *Opif. Mundi* 69, 134; *Palladios, Life of Chrysostome*).²³⁾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통해서 경험한 새 창조와 성령의 풍성한 은사들을 인하여 ‘이미 실현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들은 ‘영적으로 이미 완성된 존재’라는 인식을 소유했다(비교. 고전 3:1-3).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린도 교회 여인들은 자신들의 완전한 영성의 표현으로 여성성을 제거하고 남성성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여인들은 남성적 헤어스타일과 복장을 선택하고, 자신들에게 사회적으로 기대되던 여성적 역할들을 거부하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비교. 4:8; 8:2, 9; 14:36-38).²⁴⁾ 그러나 고린도의 여인들이 자신들의 긴 머리를 자르고

20) P. B. Payne, *Man and Woman, One in Christ: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Study of Paul's Letters* (Grand Rapids: Zondervan, 2009), 109-215; P. B. Payne, “Wild Hair and Gender Equality in 1 Corinthians 11:2-16”, *Priscilla Papers* 20 (2006), 9-18.

21) C. L. Thompson, “Hairstyles, Head-Coverings, and St. Paul: Portraits from Roman Corinth”, 99-113; A. C.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823-826; J. Murphy-O'Connor, “Sex and Logic in 1 Corinthians 11:2-16”,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2:4 (1980), 482-500.

22) D. B. Martin, *The Corinthian Body*, 230-232.

23) K. E. Borresen, *The Image of God: Gender Models in Judaeo-Christian Tradition*, 1st Fortress Press e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173-187; E. Castelli, “I Will Make Mary Male: Pieties of the Body and Gender Transformation of Christian Women in Late Antiquity”, J. Epstein and K. Straub, eds., *Body Guards: The Cultural Politics of Gender Ambiguity* (New York: Routledge, 1991), 29-49.

24) 바울 복음이 제시한 새 창조와 자유는 고린도 교회의 남성들보다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

남성들의 짧은 머리를 선택한 것은, 외부인들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관습을 거스르는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바울의 관점에서는, 잘못된 종말론적 이해에 근거한 지나치게 성급한 결정이었다. 이에 바울은, 비록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창조와 신분이 이미 성도들에게 주어졌지만(비교, 갈 3:27-28), 그 종말론적 성취가 완전히 실현될 예수의 재림 시까지 남녀의 구분이 여전히 유효함을 가르치기 원한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의 여인들에게 자신들에게 허락된 새로운 자유로 자신들의 머리를 통제할 것을, 즉 여인들에게 사회적으로 요구되던 긴 머리를 고수 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우리의 해석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전반에 걸쳐서 요구하는 절제와 통제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비교. 고전 8:1-3, 9, 12, 19, 27; 10:23-24, 32-33; 11:1; 12:7, 25-27; 14:12, 26). 사실, 예수 안에서 경험한 개인적 자유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 절제하고 통제하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7-14장을 관통하는 바울의 핵심 메시지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11:10에서 바울은 그리스어 표현 ἐξουσίαν ἔχειν ἐπὶ τῆς κεφαλῆς을 통해 고린도의 여인들이 자신들에게 허락된 자유로 ‘그들의 머리를 통제’해야 한다고 가르친다.²⁵⁾

5. 나가는 말

본 논문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1:10에서 발견되는 그리스어 표현 ἐξουσίαν ἔχειν ἐπὶ τῆς κεφαλῆς에 대한 해석과 번역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개역개정』은 이 표현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돌지니라”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글 및 영어 번역본들도, 기본적으로 『개역개정』과 그 기초를 같이 하면서, ‘남편의 권세 아래 있는 표, 혹은 베일을 여인들이 자신들의 머리 위에 두어야 합니다.’라는 방식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과 해석은 그리스어 단어 ἐξουσία가 그 의미장 안에 포함하고 있는 능동적 의미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발

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참조. K. King, “Prophetic Power and Women’s Authority”, B. M. Kienzle and P. J. Walker, eds., *Women Preachers and Prophets through Two Millennia of Christian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21-41; A. C. Wire, *The Corinthian Women Prophets: A Reconstruction through Paul’s Rhetoric*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116-134.

25) 참조. A. C. Thiselt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839.

견되지 않는 단어 “표/표시”를 삽입해야 하는 해석학적 오류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명예롭게 주어진 긴 머리를 대신해서,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던 베일을 여인들에게 강요하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비교. 11:14-15). 이에 우리는 그리스어 단어 ἐξουσία가 바울 서신서와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 통용되던 능동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어 표현 ἐξουσίαν ἔχειν ἐπὶ τῆς κεφαλῆς는 (1) ‘여인은 그 머리를 향한 자유/권리를 소유해야 합니다.’ 혹은 (2) ‘여인은 그 머리를 통제해야 합니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7-14장의 주요 기조가 고린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획득한 자유의 무절제한 행사가 아니라, 그 자유를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라는 사실은 후자의 번역을 더 선호하게 만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2-16의 문맥에서 볼 때, 여인들이 머리를 통제한다는 것은 남자와 같은 짧은 머리 대신, 그녀들에게 명예롭게 주어진 긴 머리로 자신들의 머리를 덮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부 고린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허락된 새 창조를 근거로 ‘이미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극단적 종말 의식 속에서, 남녀의 구분을 포함한 사회적 체제를 거부했다. 이에 바울은 재림 시까지 연기된 종말론적 성취의 긴장 아래서, 비록 남녀의 차별은 폐지되어야 하지만, 남녀의 성적 구분이 여전히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원한다.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종말론적 긴장 속에서 고린도인들이 남녀의 성적 구분을 견지하는 한 방법은, 비록 현대인들에게 다소 의아하게 보일지 몰라도, 남자는 남자의 헤어스타일과 특징을, 그리고 여자는 여자의 헤어스타일과 특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바울은 한 마디로 요약하여 ‘[남자와] 여자는 자신들의 머리[헤어스타일]를 통제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친다.

(투고 일자: 2022년 6월 10일, 심사 일자: 2022년 7월 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8월 16일)